인생의 꽃 말고 마음의 꽃을 피우자

(딤후2;20~26)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이라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꽃 말고 마음의 꽃을 피우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렸을 때, 명절이 되거나 하면 음식을 잔뜩 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할 때, 평상시에는 각자 기도를 하지만 그런 특별한 날에는 꼭 할머니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음식이 다 식을 정도로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삼형제, 심지어 일을 도와주는 식모누나까지 위해서 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내용 중 하나는 손자들인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꼭 빠지지 않고 세 사람 다에게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쓰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큰 집에 금 그릇과 은 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쓰임 받음 자체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요긴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요긴함이 귀한 요긴함이 될 수도 천한 요긴함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쓰임 받는데 귀하게 쓰임 받거나 천하게 쓰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천하게 쓰임 받으면 지옥으로 그냥 이어져나가는 거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 천국으로 이어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임 받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대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뭐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요.
우리 할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올바르게 기도를 하시려면,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크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쓰임 받으니까 정말 요긴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신앙적 지식이 깊었더라면 '쓰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천하게 쓰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의 마음은 천하게 쓰임 받는 일은 원한 적도 그림자도 없지만 말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귀한 쓰임이고 어떤 게 천한 쓰임일까요?
성경을 보면 귀한 쓰임은 천한 쓰임과 붙어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와 주님이 있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이 팔리십니다.
가룟유다가 쓰임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아주 천한 쓰임이지요.
이걸 오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를 강퍅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가 예수를 팔았다'가 아니라 가룟유다의 악한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한 쓰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는 성경에서 또 들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악한 거예요, 동생을 어떻게 노예를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행위를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목을 받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게 다 악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나 요셉의 형들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음과 천하게 쓰임 받음을 구분하게 되는 경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천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진단해내기 위해서 이 두 쓰임 받음이 갈라지는 경계선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뭔가 하고 봤더니,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하면'이라는 말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에서 이런 것은 앞에 언급된 다른 교훈, 이단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다툼을 일삼게 되는 그러한 신앙적 가르침과 교훈들.
주님의 연쇄사건은 그 자체로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는 그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기 때문에 무슨 말다툼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얼 뜻하는가 하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연쇄사건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깨끗한 마음이 되면 너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이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한 겁니까? 아니에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 안에 있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결이란 뜻이에요, 청결.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가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왜 더러운 쓰임을 받게 됩니까?
깨끗한 쓰임은 귀한 쓰임이고 천한 쓰임은 더러운 쓰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붙어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천한 쓰임을 받게 됩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나라의 독립이 먼저고 나라가 독립할 때 한 자리 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그는 돈궤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대로 돈을 무지하게 좋아했던 자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무슨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돈을 좋아하고…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천한 쓰임을 받습니까?
아버지께 사랑받는 요셉에 대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천한 쓰임을 받게 됩니까?
정욕으로 요셉을 유혹하다 거절당하자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혹은 원한을 가지고, 이거 다 더러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천한 쓰임 더러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일견 모순이 돼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모순된다는 게 아니라 모순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뿐인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으니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은 소원이 생겨가지고 쓰임 받기 위해서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장에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모든 수익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 재투자하는 것 외에 전부다 구제를 위해서 쓰겠다.
이 얼마나 갸륵한 뜻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돈도 안 벌리고.

그리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 동안 다짐을 합니다.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서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꼴꼴나게 목회하고 남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비리비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웅대한 꿈을 꾸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세계를 선교의 대상으로 마음에 품게 될 때, 선교의 대상으로 품은 세계는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잘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구제하는 데에 쓰겠다는 그 마음, 구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은 당연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가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라가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한, 마음에 나라를 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제를 위해 벌리는 사업이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한에는 마음에 그렇게 들여오면 안돼요.
세상을 선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을 선교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들여오면 안돼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갖지 마세요.
‘인생의 꽃’을 피운다고 할 때 그 꽃의 모양을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는 건데,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인생의 꽃을 피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꽃을 피우려 하라는 겁니다.
박 근혜 대통령 인생의 꽃을 피운 거죠.
이 건희 씨, 인생의 꽃을 피운 겁니다.
학박사 돼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면 인생의 꽃을 피운 것 아니겠어요?
예술인으로 조 수미 씨 같은 분들 모두 인생의 꽃 피운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 되니까 귀한 쓰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꽃 대신 마음의 꽃을 피운다.
마음의 꽃이 뭡니까?
마음이 활짝 웃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한 것,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행복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음의 꽃을 어떻게 피웁니까?
마음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이기 이전에 행동으로 무엇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은 완전히 꽃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인생의 꽃 대신에 육체를 통해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꽃을 피우자!
마음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연쇄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에 대해 죽어버림으로써 세상에서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 따라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감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마음에 꽃을 피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꽃을 피움으로써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

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뜻과 계획들이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꽃피우는 거지 내 인생이 꽃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마음에 꽃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연쇄사건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에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고, 내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마음의 꽃을 피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 이해를 확장시켜보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하나 아깝지 않은 목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마음이 더 안타깝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예배를 드릴 때 제일 어려운 때가 학생 나이의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장례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잘 따져보면 정말 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울까요?
인생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으니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하지만 최고로 아쉬운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인생을 꽃피우겠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이 더럽고 천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꿈과 비전을 갖고 온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더럽게 쓰임 받은 겁니다.
마음에 꽃을 피워서 선한 행위 딱 한 가지 했어도 그것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꼭 히틀러처럼 광란의 몸짓을 벌여야만 천한 쓰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 것, 나라를 위한 것이든 가정을 위한 것이든 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든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더러운 겁니다.
왜 구제하려고 합니까?

구제하는 자기의 멋진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는 멋진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할 다 지워야 할 인생들이에요.
왜 얼굴을 못 드느냐 하면,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이뤄놓고서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도 공곡유란, 인적 없는 계곡에 홀로 피어있는 난초가 은은히 향기를 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피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사람 모두가 다 박수를 쳐도 더러운 쓰임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죽은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칠십 팔십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더러운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라 이겁니다.
지워야 될 양이 많은,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러워해야 될 양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게 더 심각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신앙을 물려받아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한 자들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도 지워야 할 인생이 적은 거예요, 더럽게 쓰임 받은 기간이 짧은 겁니다.
그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죽을 나이가 다 돼 가는데도 더러운 쓰임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더 큰일이고 더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란 행위 차원 이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만 있으면 꽃피울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꽃을 피우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꾸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길게 보고 크게 보고 확대해서 보면.

내 육체를 통해 행위 함으로써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인간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십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쓰임을 받는 자들도 세상에 있는 것이니까.
천한 쓰임 더러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 안 믿는 재벌그룹의 회장님이 많은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인들도 다 필요한 대로 사서 씁니다, 더러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안 믿었다면 세상을 개혁했다고 하지만 더러운 쓰임을 받다 죽은 것이고, 그분이 믿으셨다면 깨끗한 쓰임을 받다 죽은 겁니다.
마음이 꽃을 피운 상태에서 그분이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인생의 꽃을 피운 거라면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쓰임을 받은 거지요.
이건 뭐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진단되어 들어갈 수 있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함으로써 십자가 연쇄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말고 다른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불러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충분히 쓰임 받습니다, 더럽고 천한 쓰임을.

어쨌든지 주님의 연쇄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도록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꽃을 피움으로써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꽃피우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행위 하나 실천에 옮기기 이전에 마음이 활짝 꽃피움으로써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 되는 귀한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